

이용호 의원, '민간SPC 부동산신탁산단개발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민간 법인도 부동산신탁계약 체결가능하도록 하여 산단개발 안정성 확보 필요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던 민간 법인 시행의 부동산신탁 산단단지 개발사업이 가능해진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4일, 민간사업자가 출자·설립한 민간 법인(SPC)도 부동산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단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SPC 부동산신탁 산단개발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민간이 시행하는 산단단지개발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산단단지 신탁개발이 가능하도록 산단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신탁업자와 산단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려면, 해당 산단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



려는 자 또는 해당 산단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단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여야만 산단단지를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가 산단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인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는 법령 미비로 인해 신탁개발을 할 수 없었다.

이용호 의원은, "현행법은 산단단지개발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

서 산단단지 신탁개발을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면서, "그러나 민간법인(SPC)이 시행하는 산단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입법 사각지대로 인해, 사업 안정성과 편의성 등이 이접인 부동산신탁개발사업이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민간사업자가 출자·설립한 민간법인(SPC)도 부동산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단단지개발사업이 가능해지고, 나아가 기존 추진 중인 산단에서 민간법인(SPC)과 신탁계약한 부동산신탁업자 역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면서, "향후 민간주도 산단개발에서 위탁자의 사업재산 보호, 사업 신용도 상승에 따른 원활한 자금공급, 사업부도 리스크 감소 등 안정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해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이철 전남도의원 "완도항"을

"동북아물류허브항"으로 키워야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철과 함께하면 완도가 바뀔니다"

이철전남도의원(완도1,더불어민주당)은 "완도항"을 "동북아 물류허브항"과 "서남해안권 어업전진기지"로 키워서 명실상부한 지방무역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또한 완도항이 활성화 되어 완도 지역경제가 발전되고 지역경기가 살아난다고 생각한다. 완도항에 향후 2천억대의 투자가 이루어져서 제2의 장보고 해양시대를 열겠다고 장기계획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 의원은 도정질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완도항개발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였으며 완도항은 전라남도가 유일하게 개발하고 있는 지방무역항으로서 국비100%가 투입되어 항을 개발하고 있다.

피항시설인 "중앙방파제"와 소형선박피항지인 "유선부두"가 완공되고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있는 북방파제 바깥쪽의 "대체부두"와 항만터미널앞쪽의 "둘레부두"가 완공되면 완도항의 부족한 선박접안시설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한다.

북방파제 바깥쪽의 대체부두 공사 시 북방파제의 해수소통구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방파제가 완공되면 항내정온이 안정되면 관광객들에게 불거리 제공을 위하여 해상분수대의 설치도 검토할 수 있을거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광주~완도고속도로의 완공과 현재 공사중인 해남남창에서 강진계리까지의 국지도가 확장이 되면 완도항 으로의 물류는 시간과 경제적으로도 제주와 가장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물동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를 대비해서라도 현재, 신지강둑쪽과 남방파제 반대쪽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및 생태자연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장래 이부분을 해제 시키고 향후 항만기본계획에 신지강둑쪽을 매립하여 물양장을 건설하고 동방파제를 건설하여서 어업전진기지로 활용 해야한다.



완도항 항계선을 신지대교까지 확장해서 구,완도호텔에서 신지대교까지의 임항도로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 의원은 완도항의 비효율적인 항만개선이 필요(현재38%사용)하고 미 사용하고 있는 신지강둑마을과 신기마을쪽(62%)을 개발하여 국가적 장기비전과 물류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지역거점 항만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면서 해양레저,관광물류 뿐만 아니라 허브항만으로서 그 중심에 서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완도항 뿐만아니라 항만사업에는 막대한 예산투입과 항상 민원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하면서 도의회에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 의원은 현재,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전문성을 발휘하여 완도지역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방안전인 화흥포항과 완도지역 지방어항 및 소규모어항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군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공약, 청렴, 성실을 잊지 않고 남은 임기동안 "오직!완도 발전만 생각하며 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영안기자

김선교 의원,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상레저활동으로 인적·물적 피해 우려 시, 금지구역 지정 가능!



수상레저활동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은 2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상레저안

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최근 웨이크 서핑(모터보트가 지나가고 나서 생기는 파도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과 같은 인위적으로 큰 파도를 발생시키는 수상레저활동으로 인해, 내수면 조업에 지장이 발생하고 주변 선착장과 계류되어 있는 어선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중 인명사고 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관련 김선교 의원은 "최근 수상레저인구가 크게 늘고 관련 사업장도 급증하면서 경쟁적 운영에 따른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좁은 수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지자체는 수상레저활동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동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어민들의 조업에 대한 안전 확보와 수상레저활동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정찬민 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의결정족수 미충족시 임시이사 선임, 조건 완화된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안변영 통과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에 따라 잔여 이사가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어 학교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때,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된 사립학교법이 개정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이 지난 12월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으로 통과됐다.

그동안 학교법인의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임원취임승인 취소되는 경우,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므로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있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됨에 따른 잔여 이사가 이사회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때, 임시이사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임시이사 제도 취지에 더욱 부합하다"는 의견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임원 취임승인 취소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찬민 의원은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로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를 신속하게 선임함으로써 의사정족수 미달로 인해 이사회가 공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사회가 정식 절차를 거쳐 이사를 선임하게 되는 경우 즉시 해당 임시이사를 해임하게 되어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충한다는 측면에서 실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법 문언의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 조속한 임시이사 선임을 통해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도모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dalyculture.kr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평택시 시청로 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회장 문기우/부회장 박유석 / 사장 임성경 / 편집국장: 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치부: 내선 (112) 문화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 가50146 사회부: 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제부: 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방부: 내선 (119)
편집국: 02) 2612-2959 팩스: 02) 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도민에게 행복을 드립니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
경기도의회가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고양시, 킨텍스에서 MICE 대표 국제회의 개최한다

'2021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



고양시가 주최하고 고양컨벤션뷰로가 주관하는 '2021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가 8월 25일(수) ~ 26일(목) 이틀 간 킨텍스 그랜드 볼룸에서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 병행)로 개최된다.

2017년 최초 개최 이후 MICE분야의 대표적인 국제회의로 성장해온 이번 행사는 한국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한국MICE협회, 한국PCO협회 등 국내 대표적인 MICE지원기관들이 후원한다.

또한 컨벤션분야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구인 International Convention & Congress Association, 전 세계 도시지속가능성 네트워크인 Global Destination Sustainability Index 및 글로벌 MICE컨설팅사인 Gaining Edge가 행사에 참여한다.

'MICE, 도시를 되살리다 (MICE, Reboot the City)'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첫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국제 데스티네이션 경쟁력 포럼'이 열린다. 둘째 날에는 도시마케팅 세션인 '아시아 데스티네이션 라운드 테이블', 지속가능성 세션인

'GDSM 아시아 태평양 포럼'이 열린다.

행사에는 국내외 MICE분야 석학 및 전문가들이 연사 및 토론자로 참여한다. 특히 첫날 기조강연은 지속가능개발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인 Jeffrey Sachs (美)콜롬비아대 교수가 '지속가능성과 도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전)UN사무차장 김원수 대사의 진행으로 김철원 경희대학교 교수가 함께하는 특별대담을 한다.

이번 행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달라진 MICE산업 환경에 대해 산업 관계자들에게 이해와 경쟁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 시민에게는 코로나 이후 도시의 회복에 있어 달라지는 MICE의 역할과 효과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장이 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MICE행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나아가 고양시를 '아시아 MICE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영기기자

오산시 유엔군 초전기념관, 제5회 한국전쟁 체험박람회 개최

오산시 유엔군 초전기념관은 유엔군 참전의 날인 오는 7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5회 한국전쟁 체험박람회 Ontact+SafeOfftact (온택트 더하기 세이프오프택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를 맞는 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온·오프라인 결합형 행사로 진행된다. 온라인 행사인 '제5회 한국전쟁 체험박람회 Ontact'는 오는 7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을 시작으로 10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온라인전시관에 접속해 유엔군 초전기념관의 상설 전시실과 죽미령 평화공원 일대를 관람할 수 있다. 이후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유엔군 초전기념관에서 개발한 모바일 게임형 교육콘텐츠 '한국전쟁 평화보드게임 ONLINE' 꿈꾸는 평화 실천가'를 체험함으로써 한국전쟁의 내용과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오프라인 행사인 '제5회 한국전쟁 체험박람회 SafeOfftact'는 8월 13일부터 8월 15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운영되는 100% 사전 예약제가 적용 프로그램이다.

'작전명령! 죽미령을 조사하자.'라는 주제로 진행 선생님과 함께 죽미령 평화공원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전쟁과 오산 죽미령 전투

를 퀴즈와 AR (증강현실) 게임으로 만나볼 수 있다. 더불어 7월 2일부터 8월 29일까지 유엔군 초전기념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되는 전쟁기념관 협력마케팅 이동형 전시 모듈 특별전 '가슴에 단 명에 6·25전쟁과 무공훈장'까지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유엔군 초전기념관 학예연구사는 "오산 죽미령 평화공원이 평화와 감사의 의미를 담은 장소인 만큼 Ontact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SafeOfftact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평화공원에서 한국전쟁과 평화의 의미에 대해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온·오프라인 행사 참여 후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소중한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경기도 등록문화재로 등록 추진 중인 유엔군 초전기념비 캐릭터가 있는 다양한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한편 2013년에 개관한 유엔군 초전기념관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 지상군이 남하하는 북한군과 최초로 교전을 벌였던 전적지인 오산 죽미령에 세워진 국가수호 현충시설이자 공립박물관이다. 2020년 7월 5일에는 스미스 평화관과 죽미령 평화공원이 개장해 시민을 위한 살아있는 역사평화교육의 장이자 쉼터로 활용되고 있다.

김남주기자

안성시, 치매 환자 실종 예방 손목형 배회감지기 무상 보급

GPS 기능 내장되어 위치 파악 가능



다. 손목형 배회감지기는 위치 추적 장치(GPS)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보호자가 전용 앱을 통해 착용자의 위치와 동선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에 설정해 둔 권역(안심존)을 이탈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림을 전송하고, 위기 상황 긴급 호출(SOS) 알림도 가능하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 및 경찰청, SK하이닉스 간에 '배회감지기 무상 보급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안성시 치매안심센터는 오는 8월 2일부터 배회·실종 경험 또는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손목형 배회감지기를 무상 보급한다고 밝혔다.

'배회감지기 무상 보급 사업'은 SK하이닉스의 사회공헌사업으로, 치매 환자에게 위치 추적 장치인 배회감지기를 보급하고 통신비(2년)를 전액 지원하며, 치매 환자 실종 시 빠르게 발견하여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정혜숙 보건소장은 "치매 환자가 실종되면 이동 경로 추적이 어려워 안전에 크게 위협을 받는데, 이번 배회감지기 보급을 통해 치매 환자 실종 시 조기에 발견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이 모두 안심하고 살아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배회 가능 노인에게 인식표를 발급하고 경찰서와 협업을 통한 사전 지문 등록 등 치매 어르신들의 실종 예방을 위한 치매 환자 지원 서비스도 추진 중이다.

원종균기자

하남시, 폭염·코로나19 대비 상수도 시설물 건설현장 점검



무원,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2일 진행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폭염주의보·경보에 따른 휴게시설 운영 및 휴식 보장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음료·열음 등 비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등으로,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 여부에 주안점을 뒀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는 근로자 휴게시설 운영, 음료와 식염 비치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여건이 조성돼 있었으며,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을 자제하는 등 근로자 보호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을 마친 친환경사업소장은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해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코로나19 방역관리에도 힘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 달라"며 철저한 현장관리를 당부했다.

박강호기자

제5회 한국전쟁 체험 박람회

- 온라인**
 - 일시 2021. 7. 27 (화)부터 10. 31 (일) 까지 3개월간
 - 장소 온라인 전시관
 - 내용 초전기념관 온라인 전시 감상하기, 꿈꾸는 평화실천가 게임, 어드벤처 체험 활동하기
- 오프라인**
 - 일시 2021. 8. 13 (목)부터 8. 15 (일) 까지 3일간
 - 장소 오산시 유엔군 초전기념관
 - 내용 작전명령! 죽미령을 조사하자, QR코드 접속으로 사전예약하고 가족과 함께 죽미령 평화공원을 탐방하기

모든 행사의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행사문의 유엔군 초전기념관 (031) 377-1625

남원 농·축산물로 가장 맛있는 요리 만들기

2021 남원시 유튜브 영상 공모전

접수기간 : 2021. 8. 1(일) ~ 8. 9(월)

이거 보면 먹고 싶을걸~

공모내용
남원 농·축산물을 재료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맛있게 먹는 영상

결과발표
2021. 8. 31.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작품심사
심사위원 10명 선정 후 국민심사 (유튜브 좋아요 득표수 평가) 최종선정 : 심사위원 점수 50% + 국민심사 점수 50%

출품작규격
아래 3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함.
① 영상 자막 또는 화면에 남원 농산물 구입처 표기
② 요리 방법 소개
③ 맛있게 먹는 먹방
※ 출품작 규격 이외 영상 촬영 장소, 내용 구성, 화질 구성 등은 자유형식으로 하되 영상 길이는 최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함

시상내역

구분	작품수	시상금	비고
대상	1	3,000천원	상금
최우수상	2	각 1,500천원	
우수상	2	각 1,000천원	
입선	5	각 300천원	

제출방법
참가신청서 1부, 약속서 1부, 출품작 1편 제출(hijins@korea.kr)

문의처
남원시청 홍보전산과 홍보계 ☎063-620-6044
※ 기타 세부사항 및 신청서류는 남원시청 홈페이지 참고

창원시, '케이조선'기업의 날 지정 대대적 기업홍보 추진

STX 조선해양 - 케이조선으로 사명 변경

창원시는 7월 28일을 '(주)케이조선 기업의 날'로 지정하고 8월 6일까지 10일간 기업주간으로 운영하며 대대적인 기업홍보 활동을 전개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업의 날은 대규모 투자,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정된다. 기업의 날 지정기간 동안 사기계약 허가,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기업홍보 활동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해 허성무 시장은 지난 20일 케이조선을 방문해 CI(기업로고) 변경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시찰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조선업황의 회복과 뚜렷한 수주 개선 흐름에 창원시민을 대표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케이조선은 전년에 복수의 선사로부터 5만 t급 2척, 6,600 t급 PC선 2척을 수주하였고 2021년에는 11.5만 t급 2척, 5만 t급 13척, 6,000 t급 PC선 3척과 옵션 4척을 수주하여 2년간 무려 26척(옵션포함)에 이르는 대대적인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극복 이후 예상되는 세계 경제 회복과 IMO 규제 강화로 노후선박 교체 등을 위한 신조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이에 발맞춰 창원시도 진해구를 산업위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각종 정부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진해 조선업 관련 기관 및 기업을 초청하여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조선사 근로자를 위한 초청 음악회를 개최하여 조선업 재도약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남경영기자

남해FM공동체라디오방송국이 생긴다

지난 21일 방송통신위원회 91.9MHz 정식 허가받아



남해군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남해 FM라디오 방송국'이 곧 개국할 예정이다.

사)남해FM공동체라디오방송 대표이사 이태인(55)씨는 '지난 21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 허가를 공식적으로 받았다'고 밝히고 "미디어 문화 불모지 남해군에 새로운 미디어 문화의 역사를 열게 되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남해FM공동체라디오방송은 지난 2002년 정부 시범사업 추진 시도 이후 17년여만에 이룬 성과로, 지난해 9월, 정부의 공동체라디오방송 수요 조사에 응한 뒤 10개월만에 정식 허가를 받게 되었다.

이태인 대표는 "남해FM은 4만 남해군민과 45만 향우사회를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재원은 사업자 자체 조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방송법 시행령 제13조의 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광고, 협찬고지, 기부금, 지자체 보조금, 회비 등으로 운영된다.

공통체라디오방송은 지역밀착형 방송으로 시 구, 군 단위에 각각 1개 소만 FM라디오방송을 허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FM전파를 이용한 방송은 그 지역 공동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송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세계적인 트렌드는 '보이는 라디오' 방송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남해FM방송도 91.91MHz 전파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용 APP(앱)과 각종 SNS를 통해 동시에 방송된다.

전국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조금 지원은 없는 걸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과 공동체라디오 제작지원 사업 등 정부 기금사업과 정부 공공일자리 사업(사회적 일자리 사업, 청년 일자리 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통한 기금사업으로 일부 총당하고, 남해FM공동체라디오방송국의 경우 내년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통해 자생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난징 지역과 혼신 구간을 극복하면서 전국 방송이 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남해FM공동체라디오방송은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실제 방송프로그램 운영은 군민들이 자원봉사자로 직접 제작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방송국에서는 지역의 각 기관 및 사회단체들로 이루어진 거버넌스 조직과의 업무협약과 희망하는 군민들의 참여를 통해 방송 제작인력을 확보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 공동체라디오방송 사업은 정부에서 2002년 처음으로 공모를 통해 8개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17년여만에 신규허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방송분야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음악, 문화, 지역 정보제공 등 프로그램 편성이 가능하며 '보도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다만, 정보 프로그램의 형식에서 타 언론매체에 비해 뉴스를 제공받아 방송은 가능하며, 지자체와 협약체결을 통해 재난재해 방송도 가능하다.

이런 공모는 전국 60여 지역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마지막까지 완주하고 정식 허가를 받은 곳은 20개 지역으로 경상남도에서는 남해FM공동체라디오방송이 유일하다.

사)남해FM공동체라디오방송은 뜻있는 군민 12명이 모여 설립한 비영리사단법인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4월 26일 발기인 창립총회에서 이태인(55세)씨가 대표이사로 선출되었다.

강영훈기자

진주시 수출기업협의회, 'LH 해체 반대'국회 앞 1인 시위

경남진주 혁신도시 지키기 범시민 운동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LH 해체 반대 상경 릴레이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 수출기업협의회는 26일 국회 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진주시 수출기업협의회는 "수출의 밑바탕인 지역경제를 뒤흔드는

정부의 결정에 결사 반대한다"며 올바른 LH 개혁과 혁신을 호소했다.

상경 시위에 참여한 송근호 회장은 "지역 균형발전과 경남진주 혁신도시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방적인 LH 해체안에 반대하며, 국가와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등 다양한 집단과 논의한 합리적인 개

혁안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투쟁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 수출기업협의회는 지난날 3일 권기대회 이후, 'LH 해체 반대 차량 스티커 붙이기 운동'을 비롯한 범시민 LH 지키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최광용기자



신규 임용 소방공무원 힘찬 '첫 걸음'

4주간의 관서실습 후 재난현장 최일선 배치



거창소방서는 26일 서장실에서 신규 소방공무원 4명에 대한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임용자는 소방공무원으로서의 능력배양을 위해 중앙소방학교에서 12주간의 화재진압·구조·구급 실무에 관한 교육 수료 후 임용되었다.

앞으로 신규 소방공무원 4명은 개별 직무교육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 배양을 위해 4주간의 관서실습 교육을 받은 후 재난현장 최일선인 119안전센터에 배치돼 지역민 안전을 위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순욱 서장은 "소방공무원으로 첫 출발을 시작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며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거창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병철기자

울산과학관,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 '슬기로운 과학생활'

울산과학관(관장 박용완)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슬기로운 과학생활'이라는 주제로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과학, 메이커·발명, 전시, 천체 등 4개 부문 15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여름방학을 의미 있게 보내려는 학생들에게 즐겁고 알찬 체험을 제공할 것이다.

과학 분야에서는 과학이 놀자! 유아 특별프로그램, 재미가득과학놀이, 가족과 함께하는 과학실험교실, 고교 동아리와 함께하는 과학이론교실 등 과학에 대해 관심과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전시 분야에서는 김현선 작가의 '일 리스트 & 도자기'작품전을 선보인다.

메이커·발명 분야에서는 로봇댄스 공연, 메이커 체험교육의 날, 울산메이커교육센터 방학특별프로그램, 온라인 메이커교실, 토요발명교실, 여름방학 특별 발명교실 등 과학 원리를 실생활에 활용해보며 과학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융합과학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천체 분야에서는 품동 영상 상영회, 과학영화교실(평일, 주말), 별자리 우주여행, 가족천체체험교실 등 천문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4개의 프로그램이 별빛천체투영관, 천체관측실에서 운영된다.

김기현기자



부산시,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병원 8개소 추가 확대



부산시는 8월 1일부터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병원을 확대 운영한다.

권역별 8개소를 추가한 9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되는 병원은 ▲구포부민병원(북구) ▲기장병원(기장군) ▲부산성소병원(남구) ▲부산합찬병원(동래구) ▲서호병원(수영구) ▲세웅병원(금정구) ▲중앙U병원(사하구) ▲효성시티병원(해운대구) 8곳*이다.

부산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및 배우자는 지정병원 9개소 이용 시 가구당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올해 추경예산 2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원병원을 확대하였고, 이를 통해 기간 저조했던 독립유공자 유족의 이용률을 높여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2006년 사업 추진 이후, 15년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병원을 부산의료원 한 곳으로만 지정, 운영하여 고령 유족들의 접근성이 낮아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시는 금년 8개소 확대를 시작으로 올 연말 국가보훈처에서 추가 지정 예정인 위탁 의료기관까지 부산시 지원병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어떤 지원이라도 독립유공자의 헌신에 비해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나라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해야 할 것"이라며, "독립유공자 유족들의 생활 안정과 예우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에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경영기자

하동소방서, 신규 소방공무원 6명 신고 및 환영식...실무교육훈련 후 배치

경남 하동소방서는 지난 26일 오전 2층 소회의실에서 신규임용 소방공무원 6명에 대한 인사발령 신고 및 환영식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임용된 소방사 시보 6명은 김익태(일반소방), 김윤찬(일반소방), 박태준(일반소방), 노성재(일반소방), 정현우(소방학과), 조정현(일반소방)으로 이들은 앞으로 소방서에서 4주간 화재 등 사고현장에 완벽히 대응하기 위한 실무교육훈련을 받게 된다.

이 과정을 모두 마치면 최일선 부서인 119구조대 및 119안전센터로 배치돼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소방업무를 수행한다.

조현문 서장은 "신규임용을 소방서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고 하동소방서 전업을 환영한다"며



"실무교육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각자 배치되는 근무지에서 청렴과 봉사로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익산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 검사 '권고'

익산역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 외국인 근로자 수도권 방문자 등 검사 권고



익산시가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권고하고 나섰다.

특히 시는 수도권 확산세가 비수도권까지 이어지면서 일상생활 방역 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하는 등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방역에 고삐를 당긴다.

이진운 보건소장은 24일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확진자 현황과 방역 추진 대책에 대해 설명하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익산시는 지난 22일부터 외국인 사적 모임과 관련해 총 1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고 비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 차단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보건소와 익산역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지역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수도권과 타 지역 방문자에 대한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시는 모든 외국인은 일반 시민들과 동일하게 비자 확인 과정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줄 것을 권고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점검도 강화했다. 시는 지난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이용객이 많은 변화가의

유희시설과 식당·카페 등에 대한 특별방역 점검을 8월 1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식당·카페·호프집·맛집·관광지 등 648곳과 유희·단란주점 138곳으로 24시 이후 운영 여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출입자 명부 작성, 1일 3회 이상 환기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강화된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적용해 출입자 명부 작성과 소독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1회 위반 시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익산은 지난 22일부터 외국인 사적 모임에서 16명, 내국인 3명(자가 격리 중 확진) 등 총 1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초 확진자인 506번(전북 2562번)이 외국인 전용 노래연습장에서 5명과 모임을 가진 이후 또 다른 자택 모임, 직장 동료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운 시장은 "수도권 확산세가 비수도권까지 이어지면서 연일 1천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며 "타지역 방문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는 근로자들이 의심 증상이 없어도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전했다.

이선수/기자

군산, 거리두기 3단계 격상 - 휴가철 코로나19 확산 주의



군산지역의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8월 8일까지 3단계로 상향된다.

25일 강임준 군산시장은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이 거리두기가 4단계로 연장되고 휴가철을 맞아 휴가 인구가 비수도권 지역으로 내려올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의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3단계가 실시되면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되며 식당, 카페는 22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유희시설은 시설면적 8㎡당 1명,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22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행사, 집회도 50인 이상은 금지된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9일째 네자릿수를 유지하고 있고 군산 또한 이달들어 25일 현재 55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64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엄중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코로나19 관련 휴

가철과 맞물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지역으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시는 휴가철을 맞아 방문객이 집중되는 휴양지, 해수욕장 등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야간에 음주를 금주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이번 4차 유행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고통스러운 방역 조치를 실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여행, 약속, 이동을 최대한 줄여주고 수도권에서 온 방문객과의 만남을 자제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는 시민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확산 방지와 위험을 예방 할 수 있는 최선책인 만큼 예약날짜에 맞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현태/기자

전라북도 송지사, 시장·군수 긴급 방역 대책 회의, 적극적 방역 당부

외국인 등 방역 홍보 강화, 적극적인 진단 검사 권고 등, 4가지 실천과제 강조

전라북도는 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에 대해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약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정읍 등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던 나머지 11개 시군도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7월 25일(일) 중대본 합동 영상회의에서 비수도권 확진자가 4주째 증가 추세로 수도권 4단계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로 비수도권도 4차 유행이 본격화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53.7%로 한달 전에 비해 24.3% 증가하였고, 이중 전파력이 높은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44.7% 증가해서 48%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더 확산될 경우 역학대응으로 통제가 어려우므로 정부는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강화하여 4차 유행을 통제하고자 비수도권 전체에 대한 3단계 격상을 강력 권고하였다.

이에 전라북도는 잦은 행정명령으로 인한 도민 방역수칙 혼란, 행정 신뢰도 저하와 소상공인 영업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을 이유로 신중한 판단을 정부에 요구하였으나, 정부가 전국적으로 동일한 거리두기 격상으로 신속한 유행차단을 해야 일상회복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강력히 주문하여 이를 수용하였다.

또한, 정부는 현재 비수도권 동일

하게 4명까지로 제한한 사적 모임을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약 2주 연장해서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통제가 가능하다고 동참할 것을 요청하였다.

결론적으로 전라북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에 대해 7월 27일(화)부터 8월 8일(일)까지 약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정읍 등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던 나머지 11개 시군도 2단계로 격상, 도내 전역에 대한 4명까지로 제한한 사적모임도 8월 8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송하진 지사는 25일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참석에 이어 도내 시장·군수와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상황이 전국적으로 4차 유행에 진입하면서 전북지역도 7월 들어 확진자가 증가하고 각종 방역지표들도 악화되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지금의 상황을 진단했다.

지난 6월 하루 평균 4.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다가 7월에는 10.5명을 웃도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데다 감염재생산지수도 6월 평균 0.94에서 7월 1.2로 증가하여 지역 감염 확산 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변이바이러스도 7월 24일 현재 131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타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1.64배 높은 델타형 변이가 26건으로, 역학조사 등 현장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

며,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도 증가 추세인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송 지사는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도내 거주 외국인 방역 동참 당부 ▲학원·교습소 등 하절기 밀집시설에 대한 점검 강화 ▲수도권 주기적 왕래자 등 타지역 방문자 적극적인 진단검사 시행 ▲방역수칙 준수, 이동과 만남 자제 등 4가지 과제의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했다.

송 지사는 "최근 외국인 환자발생 사례 방지를 위해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관련 시설에 사적 모임 제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적극 안내할 필요가 있다"며 "도내 외국인 통·번역사 단톡과 외국인 커뮤니티, SNS를 통해 홍보하고 농업·건설업·제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도 적극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방학철, 학원·교습소 등 밀집환경 조성에 따른 방역관리자 지정, 환기와 소독 등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하고,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합동점검 지원 요청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시군에 당부했다.

송 지사는 이어 "방학기간 특강, 수능 준비 예체능 레슨 목적 등으로 수도권 방문자에 대한 주기적 검사를 시행토록 교육청에 요청"하고 타 지역을 방문한 도민, 타 지역에서 온 방문자도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 그리고 확진자 조기 발견



과 무증상자 전과 차단을 위하여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적극적인 임시·이동식 선별진료소 설치를 요청했다.

또한 "어려운 매일수속 기본이 중요하다"며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거리두기 격상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이동과 만남 자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가급적 삼가하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기"가 도민 일상에서 실천되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당부했다.

송 지사는 "현재 전국적인 유행 상황은 지금 막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예상되는 중요한 시점"으로 그 무엇보다 방역이 우선이다"며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현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적극적인 실천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해 일상을 회복하자"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완주 혁신도시 27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적용...방역수칙 현장점검 강화한다

완주군이 정부와 전북도의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완주 혁신도시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 동안 거리두기 3단계를, 혁신도시 이외의 지역은 2단계를 각각 적용해 기본방역수칙 적용 등 현장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25일 오후 영상회의실에서 20개 실과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와 전북도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강화 방침과 관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현장점검 이행계획 회의'를 개최했다.

박 군수는 이날 회의에서 "전국적인 하루 확진자 규모가 최근 1,480여 명에 달하고, 특히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전체의 40%에 육박하는 등 계속 늘어 정부가 비수도권의 일괄 3단계 적용 등 방역 강화에 나섰다"며 "이에 맞춰 완주군도 혁신도시는 3단계를, 그 외의 지역은 2단계를 적용키로 한 만큼 행정력을 총동원해 단계별 방역수칙 준수 등을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완주군은 지난 19일부터 혁신도시는 2단계를, 혁신도시 이외의 완주 전역에 대해서는 1단계를 각각 적용하고 4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한 바 있



170여 개의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출입자 명부관리와 방역수칙 준수 면회 실시, 시설환기와 소독, 경로당 음식물 취식금지 등을 점검하고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도 적극 안내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의 민원창구에 대해서는 2m 안전거리 안내와 민원접수대 투명 가림막 운영, 방역물품 비치, 하루 2회 주기적 환기, 예방 수칙 등 대민 홍보 강화, 마스크 착용 안내물 설치 등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540여 개의 사회복지시설과

신나는 여름방학을 위한 장수군 여름방학 문화강좌 개강

장수군청소년문화의집이 26일 관내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여름방학 문화강좌를 개강했다.

여름방학 문화강좌는 여름에 어울리는 디지털 만들기, 개성 넘치는 레진아트, 드론 기초배우기, 예쁜 글씨 캘리그라피 4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강좌는 내달 1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여행과 체험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관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주고자 마련했다.

참가 학생들의 안전과 방역을 위해 수강인원을 제한해 접수 받았으며, 손 소독,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금현 주민복지실장은 "코로나19

로 인해 학생들의 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있는데, 이번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계기로 관내 학생들이 새로운 경험을 접해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곽승오/기자

영광군은 지난 26일, 코로나19 예방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식품·공중 위생업소 1,141개소를 대상으로 안심콜(080)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심콜"이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해당 업소에 대한 방문기록을 간편하게 남기는 서비스로 수기 명부 작성에 따른 번거로움을 줄이고 QR코드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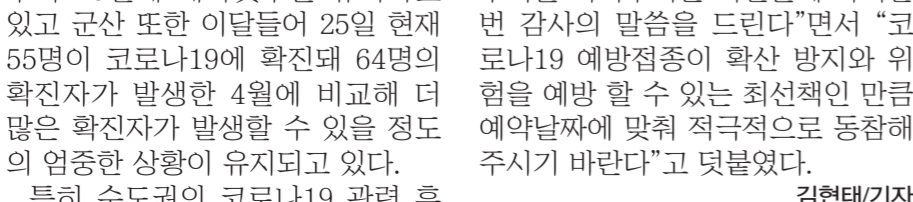
또한 명부관리 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동선과 접촉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역학조사에 매우 유용하다.

안심콜의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식품·공중위생업소 등이 안심콜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비용 때문이다. 방문객이 안심콜을 사용하면 사업

주에게 1건당 4,82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공중위생업소 등에 부담을 덜고자 영광군은 코로나19 상황 종료까지 안심콜 서비스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안심콜 서비스를 통해 식품·공중위생업소의 효율적 방역관리와 역학조사는 물론 방문객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심콜을 통한 출입관리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김영만/기자



권오봉 여수시장, '여수시민 긴급 이동 멈춤' 동참 호소

구례군, 행안부 주민생활 혁신 지원사업 선정 특별교부세 2천만원 확보

7월 26일 ~ 8월 1일 일주일간 긴급 이동 멈춤 시행

여수시가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7월 26일 0시부터 8월 1일 24시까지 일주일간 긴급 이동멈춤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25일 영상 브리핑을 통해 "지난 한 주간 우리시 일일 평균 확진자는 10.28명으로 4단계 기준인 11.2명에 거의 압박해 있다"면서, "시민 여러분께 많은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는 4단계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현행 거리두기 3단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내일부터 일주일간 여수시민 긴급 이동멈춤 주장을 시행해 감염 확산을 막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우리시는 지난 5월 17일부터 23일까지 1차 긴급 이동멈춤을 통해 확진자를 조기에 차단했던 경험이 있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외출과 모임 등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줄여주시고, 실내 환기와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함은 물론, 특히 사우나, 스포츠센터, 유흥시설 등 실내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 이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면서 "긴급 이동멈춤 주간에는 남



만포차 운영을 중지하고 해수욕장은 18시 이후 폐쇄한다",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도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25일 12시 현재 해외유입 27명 포함, 총 35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중 7월 들어 발생한 확진자만 134명이다.

7월 초에 목욕장 관련으로 16명이 발생했고, 수도권 및 타지역 확진자

접촉이 97명으로 이중 유흥업소 관련이 9명, 요가학원 관련 6명, 여천초 병설유치원 관련 31명, IT 업체 관련 25명, 기타 접촉이 26명으로 나타났다. 그 외 유증상에 의한 자발적 검진자 19명, 해외 유입이 2명이다.

목욕장 관련 감염은 지난 2주간 추가 발생자가 없다. 여천초 병설유치원과 관련은 가족을 중심으로 소수

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자가 격리중인 어린이와 동반 입소중인 부모가 대부분이어서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위험요인이 있는 경로는 유흥업소와 요가학원 관련 감염이다. 유흥업소는 특성 상 접촉자 파악이 어렵고, 요가학원은 이동 동선이 많아 추가 감염 우려가 높다.

여수시는 유흥업소 발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지난 23일 유흥시설·노래연습장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 19 일제검사 행정명령을 내리고, 해당시설 방문자에 대해서도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현재는 하반기 전 국민 70% 예방접종을 달성하기 이전에 최대의 고비"라면서 "긴급 이동멈춤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진입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시고 반드시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7월 들어 3만 4천 580건의 검체검사를 실시하고, 현재 1천979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이남출/기자

전남 구례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1 주민생활 혁신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구례군은 '섬진강으로 마실 나온 지리산 미니정원'이라는 사업으로 공모에 도전해 당선됐다.

군은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도심 속 미니 정원을 꾸미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원예치료 방식을 도입하고, 미니 정원 전시회와 공모전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사업들을 계획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최근 중앙정부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개발하고 맞춤형 재정지원을 늘려나가기 위해 공모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구례군은 이런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정책 혁신팀을 신설하여 각종 공모사업에 대응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주민 생활불편 해소 및 개선, 재난·재해 예방, 상하수도 정비, 환경보호 분위기 확산, 관광활성화 등 각종 분야의 공모에 도전해 2021 상반기에 공모사업 27건 1,120여 원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주민 생활 불편 해소 및 개선 분야에서 선정된 공모사업은 ▲중심시가



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458억 원 ▲가족센터 건립 30억 원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30억 원 등이다. 재난·재해 예방 분야에서는 ▲선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340억 원 ▲신월지구 급경사지 정비 60억 원을 확보했다.

환경보호 분위기 확산 분야에서는 지리산 반달곰 홍보관 건립 및 생츄어리 조성 242억 원, 상하수도 정비 분야에서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 370억 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32억 원 등이 선정됐다.

김순호 군수는 "과거에는 정부에서 발굴한 정책을 확실히 집행하는 기능에 충실했지만 최근 지방자치체가 성숙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의 중요성이 증가했다"며 "구례군은 부족한 자원 확보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의 발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정부 공모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상홍/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집중호우 수산양식 피해복구 현장 살피

광주전남 북부권(광주 북구·광산구, 전남 장성군·담양군)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24일 진도 청룡어촌계 방문해 "신속 복구·피해 지원책 마련" 약속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4일 진도를 방문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산양식 분야의 복구 현장을 살피고, 시름에 빠진 어업인을 위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남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산양식 피해지역의 복구 상황을 파악하고, 어업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지난 12일과 17일 강진 등 수산피해 현장방문에 이어 세 번째로 나섰다.

김 지사는 진도군에서 가장 피해가 큰 청룡어촌계를 방문해 복구현장을 둘러본 후 피해 어업인을 위로했다.

어업인들은 "전북 치패 입식비 지원, 가두리 그물망 설치사업 등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하루 빨리 피해복구를 마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어업인들이 요구한 사업들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자연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어장재배치 등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 피해지역에 우선 지원하고, 전복 판로 확대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지역의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청와대, 김부겸 국무총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부와 정치권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건의했다. 이같은 결과 지난 22일 장흥강진해남 등 3개 군과 진도군의 4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어업인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치패 입식비 지원을 건의, 23일 정부추경에 국비 20억 원을 최종 반영시켰다.

한편 지난 5일에서 8일까지 진도



460mm를 비롯해 강진 392mm, 장흥 390mm, 보성 388mm 등 남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도내 5개 시군, 264어가에서 696억 원의 수산피해가 발생했다.

김영안/기자

광주시 북구와 광산구, 전남 담양·장성군 등 광주·전남 북부권 4개 단체장이 상생발전의 청사진 마련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25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23일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최형식 담양군수, 유두석 장성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회장 문인 북구청장)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 4개 자치단체장은 ▲첨단3지구 행정구역 조정 ▲상생발전 대선공약 발굴 ▲각종 현안사업 공동대응 등 광주전남 북부권의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첨단3지구 개발 관련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및 생활권 불일치로 발생할 수도 있는 주민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경제조정안에 공감하고 '첨단3지구 행정구역 조정 TF'회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또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대선 공약을 발굴하고 광주시와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업은 '빛고를 생활권 행정협의회'를 통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상생발전협의회장인 문인 북구청장은 "광주전남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는 소통과 상생이라는 대명제 아래 지역발전에 뜻을 함께하는 협업체"라며

"앞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견고히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는 광주 북구·광산구, 전남 담양군·장성군 등 4개 지자체가 경제·산업,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교류·협력하기 위해 2019년 1월 발족했으며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한전공대 첨단3지구 유치 등 굵직한 안건들을 논의했다.

김덕윤/기자

모두를 위한 안전벨트, 양쪽 귀에 걸어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충북 상하이사무소! 코로나시대에 對중국 무역의 교두보 역할 충실

김정섭 공주시장, “폭염종합대책 추진...취약계층 특별관리”

상반기 화상상담회 개최로 수출상담 2,623천달러, 수출계약 800천달러 달성



충북 상하이사무소가 對중국 무역의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상하이사무소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의 여파로 세계교역이 위축된 가운데에서도 그동안 구축한 중국 내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도내 기업의 진출 및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특히 도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도내 기업의 안정적인 중국 진출을 위해 중국 내 50여 개 정부·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이에 지난 2019년 1,000여명이었던 중국 내 현지 바이어 수가 자체 발굴을 통해 3,000여명까지 증가하며 중소기업의 수출증대 및 기업의 자력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 안테나숍 사업을 통해 발굴한 도내 우수 제품들이 중국내 278개 마트에 입점·판매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도내 우수제품(홍삼제품, 면류 등 33개 품목)에 대한 개별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내 중소기업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고자 중국 교류지역(상하이·항저우)과의 화상 상담회를 개최해 800천 달러(약 9억원) 수출계약 체결을 도왔다.

화상 상담회에는 식품, 화장품, 소비재 등을 생산하는 10개 도내기업과 중국 바이어 44개사(상하이 22개사, 항저우 20개사)가 참여해 130건, 2,623천달러(약 29억원)의 수출상담이 이루어졌다.

특히 비대면 상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에 제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홍보를 진행해 상담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외에도 투자유치활동 강화를 위

해 하반기에는 중국내 3개 도시에서 기술교류 및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도 준비하고 있다.

황향미 충청북도 국제통상과장은 “충북 수출의 중화권(중국, 홍콩, 대만)비중이 약 50%를 점유할 정도로 도내 기업의 중국시장 확보는 매우 중요한데,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상하이사무소의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앞으로 상하이사무소가 중국 진출의 전초기지로서 임지를 굳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북도 상하이사무소는 2015년 1월 28일, 충북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상담, 바이어 발굴 등 해외마케팅 지원, 현지기업의 도내 투자유치를 위한 잠재투자자 발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상하이무역상청(상하이시 장녕구) 내에 개소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해외마케팅사업을 통해 953만 달러의 수출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 시대 對중국 무역의 교두보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강력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김 시장은 26일 시청 대백제실에서 열린 주간업무보고회에서 “지난 2018년 이후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규정됐다. 올 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사망자도 나오고 있는데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폭염 대응체계를 특별히 재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도심 속 그늘막과 버스정류장 냉방시스템 등 폭염 저감시설 점검과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살수차를 활용한 간선도로 물뿌리기도 보다 확대해 달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고령·여성 농민을 중심으로 폭염특보 상황 문자 발송과 아이스팩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등이 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살펴봐달라고 밝혔다.

또한, 폭염에 따른 축산 농가의 어려움도 매우 큰 상황인 만큼 실효성 있는 축산 분야 대책을 수립, 발 빠르게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노약자, 홀몸 어르신, 저소득 가구, 야외 노동자 등 폭염에 가장 취약한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방안을 각 부서별로 적극 모색해 실질적 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시장은 “폭염 시기에 선별진료소의 적절한 운영을 꾀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업무에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태안해경, 주말 갯바위 고립 및 선박전복 사고 등 구조대응에 구슬땀

일요일인 25일 새벽 갯바위 고립사고 2건 3명 구조에 이어 낮에도 소행어선 전복사고로 1명 구조 이어져

태안해양경찰서는 25일 주말 주말 야간 잇따른 해양사고 신고에 신속한 대응으로 갯바위 고립자 3명과 전복선박 1명을 모두 구조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새벽 3시 46분쯤 충남 태안군 소원면 아치네 인근 갯바위에서 47세 이 모 씨가 낚시 도중 고립돼 인근 동료가 태안해경에 119전화로 구조를 요청했다. 야간 수중 암초로 고립자 인근까지 접근한 모항파출소 연안구조정의 양현우 순경은 직접 입수해 이 씨를 구조한 뒤, 이어 도착한 민간해양구조선에 편승, 안전하게 육상으로 이동시켰다. 이 씨는 전날밤 11시에 동료와 함께 아치네에 도착해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하다 물때를 알지 못하고 차오르는 바닷물에 갇혀 그대로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새벽 4시 47분경에도 충남 태안군 민여도 쥐꼬리섬에 들어가 낚시하다 차오르는 들물에 갇혀 고립된 39세 동갑 김 모 씨와 가 모 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학암포파출소 연안구조정에 구조되기도 했다.

또, 이날 낮 11시 47분경 충남 태안군 석도 인근 갯바위에서 사람이 고립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태안해경 상황실은 태안해경구조대를 현장에 급파하는 한편, 인근 낚시어선 가운호 선장에 수색협조를 요청했다.



64세 정 모씨는 이날 소형 선외기 선박을 타고 석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하다 너울성 파도에 맞아 배가 뒤집혔다. 사고 직후 정 씨는 인근 석도 갯바위로 헤엄쳐 올라 손을 흔들며 지나는 선박에 구조를 요청했다. 때마침 멀리서 지나던 낚시어선 팀스카이호 선장이 우연히 정 씨를 발견해 어선 VHF통신망으로 태안해경에 즉시 신고했다. 한편, 태안해경으로부터 수색 협조 요청을 받은 가운호 선장 이 모 씨(38세)는 낚시 손님의 양해를 구한 뒤 주변을 수색하다 갯바위에 올라 구조를 기다리던 정 씨를 발견해 구조했다. 12시 33분쯤 현장에 도착한 태안해경구조대

는 바다로 입수해 반쯤 잠긴 채 전복된 사고선박의 해양오염 예방 조치 후 예인토목 조치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폭염이 계속되는 요즘 바다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 만큼 촉각을 세우고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바다에서는 유사 시를 대비해 구명조끼 착용 등 필수 안전장구를 반드시 갖추고, 물 때 확인에 따른 안전장소 이동, 119나 해로드 스마트폰 어플 활용 신고요령 숙지 등 생명보호 안전수칙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재은기자

유성구, 코로나 19 위기극복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100% 완료

대전 유성구는 소상공인 육성 및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0일 공고, 6월 21일 접수 절차로 진행된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규모의 자금을 집행했으며, 435개소에 75억 원의 특례보증을 완료했다.

신청결과 평균보증금액이 1720만 원이며, 2000만 원 전액 지원업체 311건(71%)으로 전년 대비 14% 상승해 업체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지원업종으로는 음식·숙박업 141건(32.2%) 도소매 125건(28.9%) 개인서비스 40건(9.2%) 운수 29건(6.7%) 부동산 25건(5.8%) 등 순으로 지원했다.

중·저 신용자의 지원 확대를 위해 1, 2등급 지원을 배제했으며, 3등급(18.6%) 4등급(37.5%) 5등급(17%) 7등급(58건, 13.3%)으로 저신용자들의 보증지원 혜택이 확대됐다.

대전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한도액은 유성구 출연금의 15배(75억 원)로 1개 업체당 2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앞으로 유성구는 소상공인에게 보증수수료와 대출이자 2%를 2년간 지원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소상공인 경영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증평군, 10년 국가균형발전 우수사례 30선에 2개 사례 선정



증평군이 추진한 균형발전사업 2개 사례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간한 '새롭게 살펴본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책자(2권)에 실렸다.

균형위는 이번 우수사례집에서 균형발전 사업 평가 10년을 맞아 지금까지 선정된 2백여 개 우수사례 사업 중 최종 30개 사례를 뽑아 재조명했다.

우수사례집 제1권 혁신으로 다시 서다에 실린 '대한민국 미래를 느껴 보고 싶다면 증평에 가보라!'는 마을 리더를 양성하고 인재를 키우는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담고 있다.

이어 제2권 '공동체로 길을 찾다'에는 '점-선-면 혁신을 통한 타운형 도서관으로 문화 부흥을 이루다'가 실렸다.

증평군립도서관을 본래의 기능을 넘어 복합공간으로 만들어 예산은 줄이고 활용도는 높인 점, 바로 옆에 자리 잡은 김득신문화관과 청소년문화의 집(건축 중)등과 연계해 문화적 접

근성과 집중도를 높인 점 등을 소개했다.

균형위는 2011년부터 해마다 1천여 개가 넘는 균형발전 사업을 평가해 20개 우수사례를 선정해 지금까지 총 2백여 개 사업을 시상했다.

군은 △2014년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2015년 김득신 스토리텔링 농촌 만들기 △2016년 지역역량강화 △2017년 도서관 아고라광장 프로젝트 △2019년 3농(농업, 농촌, 농민) 3안(안전, 안심, 안녕) △2020년 생활SOC 연계한 민·관 협력형 역량강화 6회 균형발전 사업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군의 균형발전 우수사례 6회 수상은 전국 최초이자 전국 최다인 진기록이다.

홍성열 군수는 “증평군의 균형발전 우수사례는 6회 수상이 끝이 아니라 올해 7회 수상 도전으로 전국 최다 수상의 진기록을 이어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최만식기자

당진시, 소비자 위한 안전한 먹거리 기반 구축에 팔 걷어



당진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위해 시 자체 품질 인증 기준을 마련, '당진시 로컬푸드 인증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당진시 로컬푸드 인증제'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가공한 제품을 대상으로 시 자체 기준에 따라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인증 대상은 GAP(우수농산물 인증) 잔류농약 허용 기준 이하이면

서 유기합성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농산물이며, 축산물은 무항생제·유기축산·HACCP 인증을, 수산물은 MSC·ASC 인증을 받은 경우이다.

또 가공품은 당진시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을 원·부재료로 50% 이상 함유해야 하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이 대상이다.

인증 기준에 적합한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에는 '해나루 당진 로컬푸드'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것을 뜻한다.

송준천 농업정책과장은 “각종 식품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이 요구되고 있는 시기”라며 “당진시 로컬푸드 인증제 도입을 통해 우리시 안전 먹거리 기반 구축에 한걸음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인디플러스포항,서울독립영화제 순회상영회 인디피크닉2021 상영

서울 독립영화제 단편 부문 수상작을 포함한 화제작 7편 상영

포항문화재단 인디플러스 포항에서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단단한 영화展 '서울독립영화제 순회상영회 인디피크닉2021'을 상영한다. 이번 상영회에서는 서울독립영화제 2020의 화제작 7편을 만나볼 수 있다.

올해로 18회를 맞는 순회상영회 인디피크닉은 독립영화의 저변확대와 지역 및 부문의 상영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전년도 서울독립영화제의 상영작을 소개해왔다. 인디피크닉2021은 총 7개의 단편 섹션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인디플러스 포항에서는 7개의 섹션 중 서울독립영화제 수상작 모음인 '단편1: K-하이퍼리얼리즘'과 독립영화에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변중희 배우에게 독립스타상을 안겨 준 '실버택배'를 포함한 '단편2: 허스토리, 귀를 기울이다'를 상영한다.

특히, 이번 인디피크닉2021에서 주목할 부문은 단편 중심으로 관객들 앞에 나섰다는 것이다. 변화된 배급 환경에서 단편영화가 관객을 만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서울독립영화제는 많은 지역과 극장들을 통해 상영의 장을 만들어서 단편영화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선한 취지와 독립영화의 새로운 활기를 위해 지역과 극장들도 동참하고 있다. '단편1: K-하이퍼리얼리즘'은 서울독립영화제2020 수상작 섹션으로 삶에서 무언가를 잃고, 유령이 되어 버린 두 연인의 일상을 표현한 단편 애니메이션스릴러(우수단편상),

변해가는 창신동의 풍경을 주인공 명선을 통해 보여주는 영화스릴(단편대상),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서 살아가는 가양7단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스가양7단지(최우수단편상) 등 총 3편으로 구성되어있다. 부제처럼 한국의 하이퍼리얼리즘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줄 예정이다.

엄마와의 이별에 대비해 엄마를 기록하는 딸의 이야기를 다룬 단편 애니메이션스나와 승자, 최선을 다해 살아온 평범한 사람이 인생의 끝을 재앙으로 맞이 않기 위해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스릴러(독립스타상), 가장 친밀한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려는 사람의 이야기인 스자매들의 밤, 몸이 아프고 난 후 다시 느끼는 세상을 담은 다큐멘터리스여름의 나무들 등 총 4편은 '단편2: 허스토리, 귀를 기울이다'에서 만나볼 수 있다. 여성 감독들의 감성과 섬세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 포항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지그재그 형태로 130석(50%) 제한 운영 중이며, 좌석 간 거리두기, 상시 소독, 방문자 전화등록 등 영화관 관리자·운영자 수칙을 준수하고 있다.

상영 일정과 정보는 포항문화재단 홈페이지, 인디플러스 포항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독립예술영화 통합 예매사이트 인디엔아트 시네마에서 수수료 없이 예매 가능하다.

김세기기자

'광주국악상설공연'으로 국악바캉스 떠나요

8월 첫째주 '떠나자! 시원한 국악바캉스'주제 무대 마련



광주문화예술회관은 8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여름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신명나는 국악 공연을 선보인다.

광주국악상설공연은 시립예술단과 지역 예술단체가 참여해 전통국악, 창작국악, 우리춤, 사물놀이 등 다채로운 국악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광주 대표 브랜드 공연이다.

8월 첫 번째 주에는 '떠나자! 시원한 국악바캉스'를 주제로 코로나19로 여름휴가를 떠나지 못한 시민을 위해 실내에서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먼저 3일에는 예술이 숨 쉬는 곳, 예라팀이 번사극 '벤토로 춘향전'을 공연한다. 이 공연은 춘향전을 1900년대 감성과 시점의 번사극으로 표현하고 국악과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를 접목해 시민들에게 친숙하고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국악무대로 꾸며진다.

이어 4일에는 올라팀의 '뽀바람에 흥이 Ola!', 5일 창작국악단 도드리 '여행을 떠나요', 6일 루트머지 '다섯 빛깔 여름' 등이 펼쳐지며, 7일에는 향산주연 판소리보존회가 '休歌(휴가)'를 주제로 한국무용, 국악가요, 국악관현악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사한다.

20일에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무더운 여름 국악축제'를 공연한다. '도라지타령'관현악 무대를 시작으로 해금으로 연주하는 뽕고음악 '댄싱 오브 더 문라이트', 생활형주곡, 관현악&연희 '판놀음II' 등 아름다운 국악선율을 차례로 만나볼 수 있다.

21일에는 광주시립창극단이 여럿이 장구를 연주하면서 발림과 가락을 선보이는 '김오재류 설장구'로 문을 연다. 또 민요 '금강산타령, 동해 바다', 단막창극 '나 토끼 아니오' 등을 공연한다. 단막창극 '나 토끼 아니오'는 판소리 수궁가의 내용을 각색한 작품으로 별주부의 뽀에 넘어가 수궁으로 들어간 토끼가 자신의 배를 가르려고 하자 자신은 토끼가 아니라며 부인하는 내용을 담은 작품이다. 마지막으로 소고를 들고 즉흥적인 춤사위의 멋을 담은 '입춤소고'로 막을 내린다.

이 밖에도 12개 단체가 국악을 주제로 매일 특색있는 공연을 준비해 관객과 만난다.

광주국악상설공연은 휴관일인 일요일과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거리두기 지정좌석제(무료)로 진행되며, 매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한다.

자세한 일정 확인과 예매는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성현출 관장은 "여름 무더위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친 시민들이 문화 갈증을 풀 수 있도록 다채로운 국악공연을 마련했다"며 "상설공연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광주의 전통예술공연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덕욱기자

부평구문화재단, 부평아트센터에서 만나는 이색 체험전시 <마녀의 초대장> 진행

부평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영훈)은 오는 7월 27일(화)부터 9월 12일(일)까지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에서 이색 체험전시<마녀의 초대장>을 진행한다. 부평아트센터에서 해마다 여름방학 시즌에 진행해 온 특별전시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동화 속에 등장하는 마녀들을 만나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이번 전시는 특별한 초대장을 받은 관객이 마녀학교에 입학해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졸업하는 콘셉트 전시이다. 마녀 학교로 연출된 각각의 공간에서 여러 마녀들의 수업 듣고, 마녀 복장을 직접 착용해보면서 마녀 세계의 신비롭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마녀의 초대장> 전시에서는 마녀 학교를 배경으로 특별한 사진도 찍을 수 있다. 동화 속 마녀들의 공간으로 연출된 전시장과 커다란 달이 떠 있는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통해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통해 색다른 경험과 다양한 인생샷 배경을 만나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마법의 정원에서 약초를 캐고, 신비한 공간에서

마법 약을 만들거나 공중에 떠 있는 마법책들에 둘러싸이는 이색적인 체험도 즐길 수 있다.

전시만으로 아쉬운 분들을 위해 마녀학교 심화 과정(유료)이 준비되어 있으며, 자연 소재를 사용해 직접 나만의 마녀 지팡이를 만드는 크래프트 아트 '마녀의 지팡이'와 크레파스와 워터 페인트를 활용해 나만의 애완동물을 컬러링 하는 '마녀의 애완동물'도 체험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7월 27일(화)부터 9월 12일(일)까지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에서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간당 입장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한다.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티켓은 12,000원이다. 부평구민은 30% 할인을 받아 9,000원에 구매 가능하며, 스페셜9인데이로 매일 9일에 구매하는 부평구민은 6,000원에 예약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www.bpcf.or.kr) 또는 전화(☎032-500-2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순희기자

마녀의 초대장
우연히 당신의 손 안에 들어온 초대장 신비한 마녀학교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기간 7월 27일 - 9월 12일
매일 11:00 ~ 19:00 / 휴관일 없음
장소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
예매 네이버, 인터파크, 현장
티켓 전시관람 12,000원
아트체험 각 2,000원 (워터페인팅, 크래프트)
문의 032-500-2000
주관 부평구문화재단 | 아트랩

군위군, 온택트 삼국유사 웹툰·미술대회 개최

삼국유사 웹툰·미술대회
2021. 07. 26. - 08. 27. 일
온택트 삼국유사 웹툰·미술대회

군위군은 오는 26일부터 온택트 군위 삼국유사 웹툰·미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26일부터 한 달간 작품을 접수받으며 전국 6세에서 13세까지의 아동이면 누구나 모두 참가할 수 있다. 주제는 '삼국유사와 군위의 역사와 문화'로 이에 대해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김세기기자

나주천연염색재단, '한국천연염색지도사협회전' 개최

8월 12일까지 천연염색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156명 작가 참여 '1인 1품' 다채로운 염색 기법 선보여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은 오는 8월 12일까지 한국천연염색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사)한국천연염색지도사협회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색의 경계를 넘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전은 협회 소속 156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특히 천연염색 예술품이 아닌 각자 자신만의 염색기법을 천 1필(전체 156점)에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하나의 전시 공간에서 다채로운 천연염료를 활용한 각기 다른 염색·표현기법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천연염색 매니아, 관람객들에게 보다 특별한 전시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권 (사)한국천연염색지도사협회장은 "각각의 작품에는 작가명과 연락처를 표기해 관람객들이 작품에 대한 질의와 소회 등을 작가들과 나

눌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작품 활동을 활성화하고 천연염색 애호가들의 감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부산시 해양자연사박물관, 2021년 기획전 '독도가 살아있다' 개최

부산시 해양자연사박물관은 2022년 2월 6일까지 박물관 1관 2층에서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박물관과의 공동기획전 '독도가 살아있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늘 우리와 함께했던 독도의 역사와 해양 생태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오늘날 독도에 대한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일본에 대응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증명해주는 수많은 사료를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은 독도의 해양 생태와 관련된 다양한 식물 표본과 생물감 넘치는 영상자료들도 함께 선보인다.

전시내용은 ▲1부 '독도 그리고 기록' ▲2부 '독도 그리고 바다' ▲3부 '독도 그리고 보호'에 해양생물 표본 및 독도 관련 고문서 등 150여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시관람은 시간당 92명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예약은 방문일 하루 전까지 부산시 통합



예약시스템 '견학/체험'에서 하면 된다.

최정희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관장은 "이번 전시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독도의 역사뿐만 아니라 최근 많은 주목을 받는 해양 생태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범위를 다룬다"며, "많은 관람객에게 평소 쉽게 보기 힘든 독도 관련 생물 표본을 비롯한 다양한 볼거리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영기기자

